

임실군과 농촌유학 활성화 '맞손'

서 교육감-심민 군수, 교육협력 협약 체결... 협약식에 유학생·재학생 참석

서거석 교육감과 심민 군수가 임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실 지사초등학교에서 전라북도교육감-임실군수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협력에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교육현안 협의와 임실교육지원청 연계협력 등 지역교

육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서울에서 지사초로 유학을 온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초 5학년 학생의 사회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9일 서거석 교육감과 심민 임실군수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에서 전라북도교육감-임실군수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에서 지사초로 유학을 온 학생들과 재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숙 교장은 '임실이 농촌유학 1번지로 알려지자 서울에서 아이들이 오고, 지사초와 서울의 아이들 그리고 지사초와 서울의 학부모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시골 마을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온 마을이 활기가 넘친다"며 "임실이 농촌유학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유학을 온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면서 "낮은 곳인데도 가까이 임실을 선택해 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임실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들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의논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후 임실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도 펼쳤다.

/장은성기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금기어가 돼선 안돼”

서거석 교육감, 임실군의원들과 지역 교육현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임실군의회의(의장 이성재)를 찾아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폐교 매입 방안, 농촌유학 등 다양한 교육현안이 다뤄졌다.

이 아닌 교사 중심의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교사와 행정단위의 공감 속에서 통·폐합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규 의원은 "임실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임실도서관이 72년도에 준공돼 노후화돼 있다"면서 리모델링을 건의했고 양주영 의원은 "달로별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임실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종민 의원은 적극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관촌 방동마을에 있

는 방동초도 매입해 활용하면 지역발전 활동도가 높으니 임실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철성 의원은 "임실은 인구소멸과 학교소멸 1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덕초가 휴교에 들어갔는데, 신덕은 청정지역이며 학교부지도 넓다"면서 "여기에 자연치유학교 또는 인근 골짜기와 연계한 골짜기학교로 전환해 가족제휴형 농촌유학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서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과 관련해 "자은학교는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한 학년에 한두 명 있는 학교는 토론 음악, 체육 등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기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 또 다른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한다"면서 "전체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 한 학년이 한두 명인 학교 등은 교육 주체와 마을 공동체가 논의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학생들의 최종 의견 확인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임실군의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올해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진행... 21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2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조사대상 전체 학교의 교당 1개 학년(초 5학년, 중·고 2학년), 교직원은 교원을 비롯해 일반직·교육공무직까지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학생 4만7,430명, 학부모 5만2,124명, 교직원 2만8,290명 등 총 12만7,844명이다.

조사항목은 2개 영역에 26개(자유 의견 기술 1개 포함)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안전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농촌유학 △아주 작은 학교 통합 △한글능력교육 △학교업무 최적화 등이다.

조사 참여 방법은 모바일 및 QR코드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한글수 정책공보관은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기초학력과 농촌유학 등에 관한 설문을 포함해 진행한다"면서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본선 진출

전북대 탄소복합재 연구팀

전북대학교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총괄책임 오명준 교수)의 지원을 받은 탄소복합재 3개 연구팀이 산학융합사업부가 주최하는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본선에 진출했다.



전북대학교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탄소복합재 3개 연구팀이 산학융합사업부가 주최하는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본선에 진출했다.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산학프로젝트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성과를 포상하는 대회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산학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40개 인력양성사업 총 428개를 대상으로 예선을 진행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CML팀(김진수 석사과정), '전주대 후끈담(박시호 석사과정)', '금오공대 CML팀(고종환 석사과정)' 3개 팀이 본선에 오른 40개 분야 132개 팀과 경쟁

을 벌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가리게 된다. 전북대는 2021년부터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기업들은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학생연구원에게는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본선 참가팀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16~23일 석사과정 원서접수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원장 최병연)은 16~23일까지 2023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석사과정 신입생은 일반전형 학교상당, 교육행정및정책 등 야간제 15개 전공, 교육연구 등 계절제 13개 전공, 특별전형 야간제 혁신미래교육전공에서 188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일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전북도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입학원서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행정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면접은 12월 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8~9일 베트남 수자원대학교의 응우옌 쩡 비엣 부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유학 프로그램 모범사례 되길’

베트남 수자원대학 대표단, 전주대 방문 2+2 프로그램 성과 공유·교류학생 점검 차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8~9일 베트남 수자원대학교의 응우옌 쩡 비엣(Nguyen Trung Viet) 부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학생들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베트남에서 유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단이 직접 방문한 것에 감동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베트남 유학 프로그램에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9년 수자원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공유, 교류학생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베트남 부총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부터 2+2 프로그램 협의를 시작해 2019년 첫 신입생을 받았고, 작년 전주대학교로 학생들이 3학년으로 편입해 잘 다니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두 대학이 모두 잘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와 베트남 수자원대학교 간 2+2 프로그램은 베트남에서 2년을 공부한 뒤 전주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2년을 다니고 졸업하는 과정으로, 어학연수 학생들의 잦은 이탈과 불법체류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유학프로그램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양측 대학이 출범시킨 제도다.

/장은성기자

“尹정부 교원 감축 발표 규탄”

전교조 전북지부 “도내 교원정원 초등 63·중등 14명 감축 교사들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 도교육청의 적극 노력 필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안)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북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 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비해지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사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 따르면 2023년도 전북의 교원정원이 초등은 63명, 중등은 142명 줄어든 전망이다.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 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비해지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사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지역별 평균 수업시간이나 학급당 배치 교사수 등 데이터를 고려해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정해 내려보냈고, 초등의 경우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 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비해지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사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축인원을 살펴보면 특히 중학교에 많이 집중된다. 소규모 중학교에서는 교과교사 1명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데,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변경하면서 교원 법정 정원 조항이 삭제되고,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 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비해지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사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정원의 기간제를 최대한 투입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한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 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비해지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사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명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유학과 전북을 회고하고, 향후 전북 유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의 기초 발제 '전북 유학 연구의 과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호남사림의 학백과 전북', 박학래 군산대 교수가 '전북 유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유학과 전북을 회고하고, 향후 전북 유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의 기초 발제 '전북 유학 연구의 과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호남사림의 학백과 전북', 박학래 군산대 교수가 '전북 유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유학과 전북을 회고하고, 향후 전북 유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의 기초 발제 '전북 유학 연구의 과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호남사림의 학백과 전북', 박학래 군산대 교수가 '전북 유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유학과 전북을 회고하고, 향후 전북 유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의 기초 발제 '전북 유학 연구의 과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고영진 광주대 교수가 '호남사림의 학백과 전북', 박학래 군산대 교수가 '전북 유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2일 차는 부안 반계 유형원 관련 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답사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유학과 전북을 회고하고, 향후 전북 유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